

## 조선후기 야담에 나타나는 노구의 특징과 의미\*

김 국 희\*\*

### 차 례

- |                          |                              |
|--------------------------|------------------------------|
| 1. 서론                    | 3) 창기와 술, 비천한 업에 종사하는 여자     |
| 2. 야담에 나타나는 노구의 특징       | 3. 노구를 통해 본 조선후기 일탈형 여성상의 의미 |
| 1) 요귀, 경이롭고 두려운 존재       | 4. 결론                        |
| 2) 숨은 조력, 가볍게 볼 수 없는 능력자 |                              |

### 국문초록

노구(老嫗)는 고대사회에서 종교의 사제, 왕의 조력자, 왕가의 연분과 관련한 일을 담당한 여성이지만 중세사회에서는 그 위상이 추락하여 양가 자제와 여염집 유부녀의 불륜을 조장하는 비속한 여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신이나 월하노인의 이미지를 가진 신성한 여성으로 인식된 점을 볼 때, 성과 속의 복합적 성격을 가진 인물로 사료된다.

\* 이 논문은 2015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NRF-2014-S1A5B5A07040611)

\*\* 부산대학교 강사

노구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추상적 특징을 제시하는 데 머물 뿐 구체적인 모습과 그것이 우리 문학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는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는 조선 후기 야담을 텍스트로 하여 노구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인식, 노구의 신분과 직업 및 활동 등을 살피고, 야담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이 조선후기 놀이문학과 이야기문학에 나타나는 일탈형 여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야담에 나타나는 노구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살필 수 있다. 첫째, 경이롭고 두려운 요괴로 인간에게 해악을 끼친다. 다만 거구, 완력, 베짜기, 집을 관장하는 신격 등의 소재를 통해 일반적인 요괴가 아닌 고대의 창조 여신과 관련하여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주인공의 일을 돕는 숨은 능력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때 노구는 표면적으로는 위기나 곤란에 빠진 주인공을 돕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 국가나 왕에 대한 조력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셋째, 기생이나 술과 관련한 미천한 일에 종사하는 늙은 여자이다. 노구의 직업은 기생어미, 사당, 주모, 약을 파는 상인, 청루의 포주 등으로 나온다. 그런데 다모나 의녀의 경우 기생을 겸한 것을 볼 때, 노구의 직업은 기생, 의녀, 다모, 사당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범주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야담은 여느 문헌에 비해 노구의 구체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는 노구가 조선후기 문학에 미친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 먼저 놀이문학에서 노구는 가면극의 할미와 꼭두각시를 형상화하는 데에 본보기가 되었다. 그 근거로 할미의 원형이 창조의 신, 대모신의 신성한 신격이라는 점과 또 극 중 할미의 직업이 노구와 유사한 사당, 포주, 무속인인 점을 들 수 있다. 즉 신을 인격화하는 데 있어 노구는 구체적인 본보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야기문학에서는 <심청가>의 뽕떡어미, <복선화음가>의 괴똥어미, 『꼭두각시전』의 이부인, <변강쇠가>의 옹녀 등 유교적 규범에서 일탈한 여성을 표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들 일탈형 여성들이 가진 물욕, 식욕, 색욕, 수면욕은 당시 사회에서는 부정적

으로 인식되었지만, 한편으로 체제에 구속되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원초적 카오스에 대한 향수를 일으킨다.

이처럼 인간적 본성이 집약된 여성상이 조선후기 문학 전반에 형상화된 데에는 이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여성, 즉 노구의 모습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주제어 : 노구, 조선후기 야담, 일탈형 여성, 부정적 여신, 요괴, 기생, 할머니, 꼭두각시

## 1. 서론

이 글은 조선후기 야담문학에 나타나는 노구의 특징을 살펴, 그것이 당시 놀이문학 및 이야기문학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한문 문학에서 할머니 또는 할미는 주로 노온(老嫗), 노구(老嫗), 노파(老婆) 등으로 표기되는데, 이 중 노구는 보통의 늙은 여성과는 차별되는 특성으로 인해 일찍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노구에 대한 연구는 고대사 분야에서 비롯된다. 최광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텍스트로 하여 고대사회의 노구가 여신과 관련한 신성한 인물임을 주장했고<sup>1)</sup>, 이후 몇몇 학자들이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견해를 개진했다.<sup>2)</sup> 한편 김국희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노구의 변화상을 살피기 위해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을 텍스트로 하여 노구의 특성을 살핀 바 있다.<sup>3)</sup>

1) 최광식, 「삼국사기 소재 노구의 성격」, 『고대사학회』, 1981, 1-23쪽.

2) 송화섭, 「한국고대사회에서 성모와 노구」, 『백산학보』64, 백산학회, 2002, 157-183쪽; 박은애, 「한국 고대 토착신앙의 담당자」, 『신라문화』38, 동국대신라문화연구소, 2011, 115-134쪽.

3) 김국희, 「사서를 통해 본 노구의 특성과 변이양상」, 『어문연구』75, 어문연구학회,

이를 통해 노구가 고대사회에서 왕가의 양육자, 남녀 결연의 중개자, 정치적 간언자의 역할을 했으나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특성이 쇠락해 진 점을 밝혔고, 아울러 그 원인을 유교적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또 노구는 일반적인 늙은 여성에 대한 명칭이 아닌 왕가나 남녀의 연분과 관련된 특수한 계층을 가리키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성과는 이후 전개될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지만, 노구라는 인물의 역동적 모습까지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물론 조선 후기 예정소설 속의 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sup>4)</sup>에서 이러한 한계가 일부 극복되기도 했다. 『상사동기』, 『절화기담』, 『포의교집』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노구가 양가 자제와 궁녀 또는 여염집 유부녀의 불륜을 조장하는 비속한 인물이면서 동시에 남녀의 인연을 맺어주는 월하노인의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노구는 고대의 신성한 사제에서 비속한 할미로 전락한 인물이며 따라서 조선 후기에는 성과 속을 겸비한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아쉬운 점은 노구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 노구의 신분과 직업 및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활동, 그리고 조선 후기 문학 속의 여성과 관련하여 노구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지 못한 점이다. 이에 본고는 야담을 통해 구체적인 노구의 상을 찾고자 하며, 이러한 상이 놀이문학 및 이야기문학 속 여성과 연계하여 조선 후기 서민문학에 나타나는 일탈형 여성의 형성에 어떻게 투영되었는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sup>5)</sup>

텍스트를 야담으로 선정한 이유는 야담은 상층 사대부의 산물이지만

2013, 164-187쪽.

4) 김국희, 「조선 후기 예정 소설 속 노구의 의미」, 『어문학』121, 어문학회, 2013, 137-159쪽.

5) 그렇다고 장르 상호 간의 영향관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 후기 문학 중 노구의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야담이므로, 야담에 나타나는 노구의 특징을 통해 당대 문학 속에 노구가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야기 자체는 상하층에 두루 유통되었으므로 여항인의 생생한 모습과 그에 대한 상층의 의식을 두루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구가 등장하는 이야기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편찬자인 사대부 지식층의 의식이 두드러지지만,<sup>6)</sup> 그 이면에는 하층의 의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어 노구에 대한 상하층 모두의 인식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물론 문헌설화인 야담과 함께 생각해야 할 텍스트로 구전설화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구전설화의 경우 할미 또는 할멈만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야담처럼 의미의 층위를 나누기가 힘들고, 이야기 대부분이 창조신화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본고가 의도하는 바와 다소 거리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참고하는 정도에서 언급하고자 하며, 이후 집중적인 연구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야담의 시대적 범위를 조선후기로 한정하는 것은 당대 문학 전반에 등장하는 일탈형 여성과의 관련성을 찾기 위함이다. 일탈형 여성은 악인형 인물과는 별도로 사회적 윤리나 규범의식에서 벗어난 여성을 가리킨다. 이러한 인물의 예로 뺨덕어미, 괴똥어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조선후기 세대를 반영하는 인물로 본능적이고 개인적인 욕망을 자연스럽게 분출하고 있다.<sup>7)</sup> 그렇다면 이런 특징의 인물형에는 꼭두각시와 할미, 웅녀 또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탈형 여성은 조선후기 문학의 주류를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판소리, 가사, 소설, 극의 다양한 장르에서 개성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야담에서의 노구에 대한 연구는 이들 여성의 등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텍스트는 『순오지』, 『천예록』, 『학산한언』, 『동패락송』, 『계서야담』, 『청

6) 야담의 편찬 의도는 작품에 따라 다르지만, 정사(正史)에 빠진 부분을 보충하거나, 세교(世教)에 도움이 되거나, 개인적인 체험과 가문의 일을 기록하는 것 등으로 볼 수 있다.(임완혁, 「조선후기 3대야담집의 편찬의식」, 『퇴계학과 한국문화』 35-1,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4, 133쪽)

7) 길진숙, 「뺨덕어미와 괴똥어미의 일탈과 그 성격」, 『한국고전연구』1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85-118쪽.

구야담』, 『동야회집』<sup>8)</sup>으로 하며, 이 속에서 노구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추려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야담에 나타나는 노구의 특징

야담에서 할미에 대한 표기는 주로 온(媼)과 구(媪)로 나타난다.<sup>9)</sup> 여기에 노(老)가 붙어 노온, 노구가 되거나 신분을 나타내는 용어가 붙어 유온(乳媼) 등이 되기도 한다. 온이 일반적인 늙은 여성을 가리키는데 비해 구가 특정 계층의 여성을 가리킨다는 것은 이미 고대 및 중세의 문헌을 통해 밝혀진 바인데<sup>10)</sup>, 야담에는 그러한 면이 더 자세하게 드러나 있다. 야담에서 온은 불행한 처지에 있는 양반의 서녀를 양육해준 늙은

8) 서민여성과 관련한 문학이 조선후기에 성행했다는 점에서, 텍스트의 범위 또한 조선후기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다만 시대의 상한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문제인데, 여기서는 본격적인 야담집인 『천예록』이 나온 17세기 후반을 시작으로 하여 19세기까지의 야담집을 텍스트의 범위에 넣었다. 되도록 많은 작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필자의 역량이 부족하여 국역된 야담집 및 대표적인 야담집으로 일컫는 작품에 한정했다. 또 저자 및 이본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지 못한 한계도 있다. 다만 이 연구가 조선후기 이야기 공간에서 보이는 노구의 모습에 중점을 두는 만큼 본고가 가지는 한계가 큰 흠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텍스트로 사용한 저서는 다음과 같다. 홍만중, 전규태 역, 『순오지』, 범우사, 1979; 임방, 김동욱·최상은 역, 『천예록』, 명문당, 2003; 신돈복, 김동욱 역, 『국역학산한언』, 보고서, 2006; 노명흠, 김동욱 역, 『국역 동패락송』, 보고서, 2012; 이희준, 유화수·이은숙 역,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2003; 이월영·시귀선 역, 『청구야담』, 한국문화사, 1995; 정명기 편, 『원본 동야회집』, 보고서, 1992.

이후 작품 원문 및 해석은 위의 책을 인용하되, 노구를 노파로 해석한 경우 원문에 쓰인 대로 노구로 정정한다. 그리고 텍스트를 인용할 경우 책명과 쪽수만 밝힌다.

9) 야담에서는 할미를 노파로 표기하는 경우가 드물다. 노파는 노구나 노온에 비해 격이 낮은 용어이다.

10) 김국희, 『할미의 놀이와 이야기, 그 원형의 계승과 변이양상 연구』, 부산대 박사, 2013, 16-25쪽 참조.

여성, 이전의 늙은 어머니, 혼례에서 수모의 역할을 하는 여성, 반쪽의 늙은 여성, 도망하여 부자가 된 계집종 등을 두루 가리킨다. 그런데 이들은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관계없이 일반적인 할머니의 면모를 넘어서는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노구는 요귀, 치병에 도움을 주는 여성, 앞날을 예측하는 여성, 기녀의 어머니, 치정 사건에 관련된 약장수, 영웅을 양육한 여성 등을 가리키고 있어 여염의 할머니와는 차별되는 점을 볼 수 있다.

다만 아쉽게도 본고가 텍스트로 한 작품에서, 노온과 노구 등의 늙은 여성을 소재로 하는 이야기가 풍성한 편은 아니다.<sup>11)</sup>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야담에는 상층 사대부를 주인공으로 하는 일화가 대부분이며, 그밖에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역술, 의학, 도선사상과 관련한 인물들의 행적이 주된 소재가 된다. 하층민의 경우 기녀나 노비가 등장하지만 이들 역시 양반과의 관계망 속에서 사건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즉 야담의 소재는 상층 사대부의 생활권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생활권 밖의 인물인 여염집 여성, 그중에서도 늙은 여성에 대한 비중이 저조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다만 등장하는 횡수의 저조함이 그 인물이 이야기에서 가지는 비중, 더 확대해서 문학적·사회적 의미와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상층 남성이 굳이 이 늙은 여성, 그중에서도 노구에게 비중을 준 것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11) 본고가 텍스트로 한 야담집에 실린 노구가 등장하는 이야기는 『순오지』의 「여용사」, 『천예록』의 「士人家老嫗作癡」, 「李秀才借宅見怪」, 『학산한언』의 「염시도」, 『동패락송』의 「노옥계」, 「치숙」, 「관상」, 『계서야담』의 「영천 박씨녀 사건」, 「양사언 형제 어머니의 지혜」, 「홍순언의 의기」, 「명의 유상」, 「서애 유성룡의 치숙」, 「사람을 알아본 선천 기생」, 「토정 이지함의 신술」, 「기강을 바로 잡은 관리 둘」, 『청구야담』의 「洞仙館副价逢鬼」, 「活人病趙醫行針」, 「聽街語柳醫得名」, 「廉義士楓岳逢神僧」, 「蠹石樓繡衣藏踪」, 『동야회집』의 「授器換金試奇術」, 「柳下將軍仗忠節」, 「蒼頭鳴錚雪誣冤」, 「聽街語柿蔀奏功」, 「假竊馬轉禍媒榮」, 「避危機獲脫惡錢」, 「茅菴喝僧現神鑿」, 「繡衣給訪茶母家」, 「救四命占山發福」, 「還銀包報以晚福」, 「感舊恩墨倅登褒」, 「紈扇映錠約正室」, 「蠹石樓兩女黜陟」, 「遇新婦因夢成親」이다.

이다.

여기서는 야담에 나타나는 노구의 특징을 경이롭고 두려운 늙은 여자, 비범함을 숨긴 능력자, 비천한 업에 종사하는 여자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요귀, 경이롭고 두려운 존재

『천예록』의 「사인가노구작마(士人家老嫗作魔)」와 「이수재차택견괴(李秀才借宅見怪)」에서 노구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미혹하게 하는 요사스러운 존재로 나타난다.

먼저 「이수재차택견괴」를 보면, 목사동 흥가와 관련한 다섯 개의 사건이 나열되고 있다. 첫 번째 사건은 가난한 선비 이창이 목사동의 흥가에서 살려 했으나 밤에 다락에서 누군가가 시퍼런 칼을 휘두르자 도망쳐 버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창이 앞서의 사건 이후 남부 부동의 한 흥가에 터를 마련했으나 미친개들이 잡귀와 어울려 노는 것을 본 후로 포기했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부터는 다시 목사동 흥가를 배경으로 어떤 사람이 그곳의 잡귀를 없애려고 다락의 물건들을 불태우는데 곁에 있던 계집종이 처참하게 죽자 그 일을 중단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역시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밤에 푸른 치마를 입은 여자 귀신이 내려와 괴변을 일으키자 떠났다는 내용이다. 목사동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노구에 대한 것이다.

그 후에 다시 전하기를, 남소문동에 사는 종들과 나무꾼 10여 명이 패거리가 되어 새벽에 길을 나서 목사동 흥가에 들어갔더니, 머리가 하나 노파 하나가 뒤뜰의 소나무 사이에 앉아 울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요귀임을 알았다. 중 한 사람이 낮을 들고 다가가 갑자기 내려찍으니, 그 할미가 집 안으로 달아났다. 할미는 키가 겨우 한 자 정도였는데, 힘은 남보다 월등히 셧다.<sup>12)</sup>

이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 사건

안에서 할미를 가리키는 용어가 달라진다. 위의 밑줄 친 부분의 원문을 보면 “後園見一白頭媪 坐哭于松樹間 衆知是妖鬼 一奴人 以鎌遽前擊之 其媪走入宅內”인데, 할미에 대한 호칭이 처음에는 ‘온’이었으나, 후에는 ‘구’로 바뀌어 있다. 이를 단순히 같은 말의 반복을 피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로 볼 수도 있지만<sup>13)</sup>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앞뒤의 상황이 다른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종과 나무꾼들이 처음 할미를 봤을 때는 이른 새벽에 웬 할머니가 이곳에 있는가 의심했을 것이다. 원문에서 ‘백두온’은 평범한 늙은 여인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상한 울음을 우는 것을 보고 요귀라는 것을 알게 되자 할미에 대한 명칭은 ‘구’로 바뀐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귀라는 것이고, 노온인 줄 알았는데 노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묘사스러운 할미 내지 할미 귀신을 구라고 칭한 것은 아닐까.

둘째, 노구로 거론되는 요귀의 성격이 보통의 설화에 등장하는 여귀(女鬼)와 상당히 다르다. 일반적으로 설화에 등장하는 여귀는 적극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어 죽게 만든다. 이들 귀신이 기껏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보여주거나 알려주는 등의 소극적 행위일 뿐이다.<sup>14)</sup> 그런데 목사동 흥가의 여귀는 칼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이며, 직접 현신하여 괴변을 일으키는 등 인간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힘이 세고 형체도 거대한 것으로 보인다.<sup>15)</sup> 기실 이와 같은 모습은 여귀보다는 여신의 부정적 면

12) 『천예록』, 211쪽.

13) 이렇게 한 이야기 안에서 두 용어를 병행한 경우는 텍스트로 선정한 작품 중 『동야휘집』의 「紈扇映鏡約正室」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紈扇映鏡約正室」에서는 미나리밭 주인 할미를 노구라고 칭하고 있는데, 할미 스스로는 자신을 가리킬 때 노온이라고 한다.

14) 억울한 죽음을 당한 원귀들조차 특정한 물건을 보여주거나 상대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어 해원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아랑이나 신립장군의 전설에서 구체적인 예를 볼 수 있다.

15) 원문은 ‘身長纔盈尺 而其大過當人焉’이다. 김동욱과 최상은은 예문에서 보이듯 ‘키가 겨우 한 자 정도였는데, 힘은 남보다 썩다.’로 해석했다. 즉 ‘大’를 힘으로

모에 가깝다. 예를 들어 삼척의 서구할미는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아이를 병들게 하거나 숫처녀를 임신시키는 등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마고할미인데, 이 할미가 취병산이나 백월산에 사는 것으로 볼 때, 이는 바로 여산신이기도 하다.<sup>16)</sup> 그렇다면 완력을 휘두르는 요괴인 노구는 단순한 귀신이 아닌 인간에게 해를 주는 신격, 즉 부정적인 여신에 가깝다고 하겠다.

물론 목사동 흥가에 나타난 귀신을 모두 노구로 볼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네 편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흥가를 동일한 공간으로 단정할 수도 없고 거기에 나타난 귀신 또한 모두 여귀로 보기도 힘들다. 다만 이들 이야기가 한 제목 아래 기록된 점과 첫 번째 이야기에서만 주인공의 실명을 밝히고 목격자를 언급한 점을 보면 당대 사람들, 최소한 편저자인 임방은 이들 귀신을 같은 대상으로 인식했던 것 같다. 따라서 귀신과 노구를 같은 인물로 보는 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정리하면 목사동 흥가에 등장하는 노구는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 맞서고 괴롭히고 소란을 일으키는 요괴로 나타나지만, 그 저변에는 월등하게 큰 형체와 완력으로 인간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여신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하겠다.

이런 특성은 「사인가노구작마」에서도 확인된다. 이 이야기에서 노구는 한 선비 집의 감실을 비우고 남편과 함께 그곳에 좌정하여 집을 관장하는 신이 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7)</sup>

---

해석한 것인데, 문제는 노구의 물리적인 행사가 수반되지 않고 있어 임방이 무슨 근거로 이러한 표현을 했는지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한편 ‘대’를 일반적인 뜻 그대로 ‘크기’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실제 크기는 겨우 한 척 정도로 작지만 사람들에게 주는 느낌은 컸다는 것이다. 이러한 착시효과는 할미가 요괴라는 깨달음과 동시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공포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이렇게 보면 노구는 마고나 설문대할망 등의 여신과 맥이 닿는데, 마고나 설문대할망은 거구이면서 힘이 세고, 여기서의 노구만큼이나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16) 한국학중앙연구소, 『구비문학대계』2-3, 1981, 243-244쪽; 삼척군, 『삼척군지』, 1984, 347-348쪽.

1. 죽전방 어느 선비의 집에 선비는 나가 있고 그의 아내만 있었다.
2. 구걸하러 온 노구가 있어 아내가 솥을 타고 실을 감는 일을 시켰다.
3. 노구는 하루 동안 6,7명이 하는 일을 해도 여유가 있어 보였다.
4. 주인 여자가 처음에는 할미에게 음식을 풍성히 대접했으나 이후 소홀히 대했다.
5. 노구가 분노하여 영감을 데려와 감실을 비우게 하고 그곳에 들어갔다.
6. 이후 음식을 풍성히 대접하지 않으면 집안의 어린이부터 죽이겠다고 했다.
7. 그 집에 들어간 모든 사람과 선비의 아내는 이후 병들어 죽었다.

위의 이야기의 노구 또한 여신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선비의 아내는 노구에게 솥을 타고 실을 감는 일을 시키며 노구는 예닐곱 사람 분의 일을 해낸다는 점이다. 솥을 타고 실을 갖는 것은 베 짜기의 일환으로 여신의 창조행위와 연관되며<sup>18)</sup> 해내는 일의 양이 보통 인간보다 월등한 것 또한 신의 능력과 부합한다. 한편 실을 감은 대가로 풍성한 대접을 받는 것과 대접이 소홀해지자 일가족에게 벌을 주는 것은, ‘신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고 소홀하게 하면 재앙을 받는다’는 민간신앙의 일면을 환기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노구가 한 집안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 그는 긍정적인 면이 쇠퇴하고 부정적인 면이 부각된 여신인 것이다.

둘째, 노구와 영감이 주인집의 감실을 비우고 자신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여염집의 감실은 조상의 신주를 모셔두는 곳으로, 감실

17) 『천예록』, 203-204쪽.

18) 동서양을 막론하고 길쌈은 여신들의 직업이다. 우리의 경우 혁거세와 알영의 어머니인 선도산성모, 주몽의 어머니 유화, 설문대할망의 이야기에서 베 짜는 여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베를 짜는 것은 새로운 질서의 창조, 새 왕국의 건국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혜경, 『태초에 할망이 있었다』, 한겨레출판, 2010. 29-40쪽)

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집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좌정했다는 뜻이 된다. 이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신격이 집안을 몰살시켰다면 그는 역귀일 가능성이 큰데<sup>19)</sup> 그렇다면 더욱 부정적 속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천예록』에서 노구는 거구와 완력으로 인간을 괴롭히는 창조 여신의 잔영, 늙은 요괴, 역귀로 나타난다. 상당히 복잡적이지만 결국 민간에서 경외하고 두려워한 여신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노구가 비현실적이고 부정적인 인물로 나타나는 이유는 작품의 성격, 임방의 관심사,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천예(天倪)’라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은 주로 기이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귀신이나 무당에 관한 이야기라도 충효의 이념을 담고 있으면 긍정적으로 수용하지만 그러한 이념과 거리가 있을 때는 노구처럼 잡귀의 횡포로 치부하고 있다.<sup>20)</sup> 특히 노구를 포함한 귀신의 횡포는 『천예록』이 편찬될 당시인 임병양란 직후의 정신적 상처와 함께 가뭄과 역병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대변한다고 하겠다.<sup>21)</sup>

이와 같이 신격에 견줄 만한 노구의 모습은 『천예록』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2세기 정도 후에 편찬된 『청구야담』의 「동선관부개봉귀(洞仙館副价逢鬼)」에서 요괴와 유사한 노구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sup>22)</sup>

1. 봉조하 이병상은 용모가 수려하고 아름다워 신선이라 불렸다.
2. 어느 날 집에서 촛불을 끄고 자는데 앞에 어떤 물건이 놓여있어 보니 소름한 시체였다.
3. 알아보니 동구 밖 떡 파는 집에서 죽은 지 사흘 된 노구의 시체였다.

19) 이승은, 「천예록 소재 기이담의 양상과 의미」, 『어문학교육』43집, 한국어문교육학회, 2011, 207-218쪽.

20) 유형동, 「임방의 기이 수용과 천예록」, 『동아시아고대학』34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177-185쪽.

21) 이승은, 앞의 글.

22) 『청구야담』, 41-42쪽.

4. 노구가 평소 공의 용모를 흠모하여 이러한 괴변이 일어났다.
5. 종실의 아들 중 부개로 연경에 가려다 모친상을 당한 이가 있어, 공이 대신 가게 되었다.
6. 봉산객사에서 잠을 자는데, 상을 당한 이의 부친 혼령이 와서 어머니 병구완을 하지 않고 사행은 것을 질책했다.
7. 공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니 귀신이 놀라 달아났다.
8. 공의 기백이 이와 같았다.

노구의 시체와 동선관에 나타난 귀신, 두 사건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8에서 언급하듯 이병상의 기백이 귀신이 주는 공포에 굴하지 않을 만큼 뛰어나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구의 시체 사건만 보면 공포나 기백보다 오히려 해학이 앞선다. 이병상의 용모는 수려했고, 옆집 할머니는 평소 그의 용모를 흠모하여 상사병을 앓았다. 그러므로 죽어서까지 임의 곁에 한번이라도 있고 싶은 것이다. 여기서 시체가 되어서라도 성취하고 싶은 늙은 여성의 음험한 색욕이 두려움보다 웃음을 유발시킨다.

『천예록』의 노구가 공포나 두려움을 조장한다면, 『청구야담』의 「동선관부개봉귀」 속 노구는 그러한 면이 감소하는 대신 색욕이 확대되고 따라서 희화화되고 있다. 그것은 17세기와 19세기 모두 늙은 요귀를 노구라고 칭한 것은 같지만, 요귀가 지니는 특성은 후대로 갈수록 인간적인 면이 확대되고 또 더 비속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노구를 산신으로 본 경우도 있다. 『동야휘집』의 「유하장군장충절(柳下將軍仗忠節)」<sup>23)</sup>은 요동백 충무공 김웅하의 이야기로 심하 전투에서 강홍립이 금에 항복하자 군사를 청하여 끝까지 금에 대항하였으나 결국 패배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논평에서 이원명은 다음과 같이 노구를 언급하고 있다.

정제집에서 말하기를 장군이 심하에 이르러 대열이 영을 넘지 않았는데, 어떤 노구가 지나가며 말하기를 “장수는 영을 넘을 수 없을 것이니,

23) 『동야휘집』 권지2, 131-138쪽.

어찌 잠시 이곳에 머무르지 않소?”라고 했다. 공이 이를 상서롭지 못하다고 여겨 노구의 목을 베었다. 드디어 영을 넘으니 장수들이 과연 패했다. 혹자는 말하기를 신이 대개 먼저 알려주었으나 공이 이미 죽기를 각오한 것이라고 한다.<sup>24)</sup>

노구는 김응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헌신했으나, 김응하는 이미 죽을 각오를 했기에 노구의 조언을 묵살하고 오히려 그의 목을 벤다. 이원명은 노구를 신, 그것도 영을 지키는 여산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비록 개인의 논평이긴 하지만 노구를 신으로 직접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 사람들이 노구에 대해 가졌던 생각의 한 면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신도 장군의 충절 앞에서 위엄을 갖추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 위상이 쇠퇴한 듯하다.

이상에서 볼 때, 세간에서는 노구를 경이롭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졌던 경외심은 긍정과 부정의 복합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다. 긍정적인 면이 창조신의 잔영 또는 영웅을 수호하는 산신이라면, 부정적인 면은 요귀나 역귀이다. 그리고 양자 중 어느 쪽이 더 우세한 것은 편찬자, 이야기 속 상황, 시대적 배경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 2) 숨은 조력, 가볍게 볼 수 없는 능력자

노구는 주인공이 위기를 당하거나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 그를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만 이때의 역할은 이야기 전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행간에 숨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순오지』<sup>25)</sup>의 「여용사」와 『계서야담』 및 『청구야담』에 전하는 ‘유상’에 대한 일화에서

24) 定齊集云將軍之赴深河行未踰嶺有老嫗過而言曰帥未可踰嶺盍姑止斯公以爲不祥收斬之遂踰嶺帥果敗或曰神蓋先告而公志已決死矣.(앞의 책, 137쪽)

25) 『순오지』는 홍만중이 1678년에 저술했다고 한다. 조선후기로 보기에 이른 감은 있지만 『천예록』과 비슷한 시기의 작품이므로 논의의 대상에 포함한다.

주인공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노구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여용사」부터 살펴보자.<sup>26)</sup>

1. 예국(穢國)의 시골 노구(老嫗)가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2. 알(卵) 한 개가 물 위에 떠내려 오는데 크기가 박(瓠)만 하였다.
3. 노구가 이상히 여겨 자기 집에 두었더니, 얼마 안 되어 그 알에서 남자 하나가 나왔다.
4. 얼굴 모습이 보통 사람이 아닌지라, 노구가 더욱 기특히 여겨 그 아이를 애지중지 잘 길렀다.
5. 아이는 나이 7~8세가 되자 신장이 8척이나 되었고, 얼굴빛은 거무스름하여 마치 성인과 같았다.
6. 나중에는 얼굴빛이 검다 하여 여(黎) 자를 성으로 하고 이름을 용사라고 불렀다.
7. 호랑이가 밤낮으로 사람들을 해치니 여용사가 단숨에 호랑이를 박살내어 죽였다.
8. 나라에서 만 근이나 되는 큰 종을 만들어 옮길 수가 없었는데, 여용사가 한숨에 들어 옮겼다.
9. 임금이 상객(上客)으로 대우해 주었는데, 죽은 곳은 알지 못한다.

떠내려 온 알, 그것을 주워 기른 노구, 특출한 용모의 아이, 별스러운 작명, 그리고 신이한 행동과 죽음. 이러한 모티프는 신라 석탈해 신화와 상당히 닮아 있다. 따라서 두 이야기의 대응되는 인물은 같은 부류로 볼 수 있으며, 여용사를 기른 노구에 대한 설명은 『삼국유사』에서 탈해를 양육한 아진의선을 통해 가능해진다. 아진의선은 탈해를 거두기에 앞서 하늘에 길흉을 점치는데, 이것은 그녀의 신분이 신과 소통하는 사제임을 암시한다. 그녀는 비상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외래자에 대한 경계가 낡은 위기 상황을 점술로 해결하고 있다. 한편 탈해의 입장에서 봐도 그가 처한 상황은 생사의 갈림길에 직면한 위기이다. 아진의선이 받아주지 않

26) 『순오지』, 61-63쪽.

는다면 정착할 땅을 찾지 못한 채 계속 바다를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탈해는 아진의선의 지감과 용기, 그리고 양육까지 담당하는 책임감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아울러 왕좌에 올라 신라를 통치할 수 있었다. 「여용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노구는 거대한 알과 알을 깨고 나온 아이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넘는 용기를 발휘했고, 아이의 비범함을 알아보는 기지를 보였으며, 그를 양육하는 데 헌신했다. 그리고 이러한 조력자의 역할은 단순히 주인공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대된다. 여용사가 호환을 막고 만근의 종을 옮기는 등, 왕이 봉착한 난관을 해결하는 데 이르면, 노구는 여용사만의 은인이 아닌 왕에게도 간접적인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여용사」는 신화적 색채가 강한 설화이다. 따라서 그 속의 노구가 『순오지』가 편찬된 당시의 노구와 위상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의 조선에서도 고대사회 노구의 공이 언급될 만큼, 비범한 조력자로서의 노구에 대한 인식이 유효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편 조력자로서의 노구의 면모가 사건의 전개 속에 은밀하게 묻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유상’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하다. 유상은 숙종 때에 실존했던 명의로 왕을 비롯한 세자와 왕자의 천연두를 치료하여 지중추부사 및 여러 지방관에 제수될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야담에서는 그가 왕의 병을 치료하는 구체적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먼저 『계서야담』의 유상부터 살펴보자. 유상은 어린 아이의 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병귀(病鬼)와 대면하기도 하고, 숙종의 천연두를 고치기 위해 대비의 반대를 무릅쓰고 돼지꼬리 기름을 쓰는 등, 신묘한 의술과 강단진 성품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노고를 인정받아 풍덕 부사로 부임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왕이 관격으로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게 된다.

하루는 숙종께서 연포탕을 드시고 관격이 되시어 파발마로 유의원을

부르니 밤을 새워 올라왔다. 새 문에 이르렀는데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문 안에서 병조에 고하자 명령을 내려 문을 열게 하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조금 지체가 되어 늦어졌다. 유의원이 성 아래 한 초가에 등불이 밝은 것을 보고 잠시 그 집에서 쉬는데, 한 노구가 방안의 여자아이에게 말했다. “아까 쌀뜨물을 어느 곳에 두었느냐? 두부 위로 떨어질까 무섭구나.” 유의원이 괴이하여 물으니 대답하였다. “쌀뜨물이 두부에 떨어지면 즉시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잠깐 있다 문지기가 나와서 성문을 열었다. 유의원이 이에 대궐에 증후를 물으니 연포로 체한 것이었다. 바로 내의원으로 하여금 쌀뜨물 한 그릇을 들이게 하여 조금 따뜻하게 하여 임금께 드시게 했다. 체기가 이내 내려갔는데, 이 일 역시 이상한 일이었다.<sup>27)</sup>

왕의 병이 경각을 다투어 입궐해야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유상은 궁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연히 들른 집에서 치료법을 찾게 된다. 요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 아래 집이 한두 채가 아닐 텐데 왜 그 집에 들어갔는지, 그곳에서는 왜 이른 시간에 두부를 만들고 있었는지, 왜 노구는 마치 왕의 병을 아는 것처럼 쌀뜨물이 두부를 녹인다는 사실을 말하는지 등 의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단순한 우연이라 한다면 왕의 병 또한 우연히 고쳐진 것이 되니 이는 왕의 권위에도 또 유상을 명의로 부각시키려는 의도와도 맞지 않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기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유상은 이미 왕이 연포탕으로 인해 병을 앓고 있음을 전해들었을 것이고, 성 아래 초가 중에서도 노구의 집을 찾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노구가 치료법을 알고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구는 의술에 능통한 여성이거나 아니면 두부를 파는 상인일 가능성이 크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그 물건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의 해결책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여 유상이 우연히 노구의 집에 들른 것으로 보더라도 이때의 우연은 천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래야 당대 사람들에게 유

27) 『계서야담』, 236-238쪽.

상은 하늘이 내려준 의원, 그래서 지존인 왕을 치료할 수 있는 명의, 어떠한 난관에서도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명의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두부 파는 노파나 의녀가 아닌 노구가 거론되는 것도 유상이 가진 천운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일 것이다.

『청구야담』 소재 「청가어유의득명(聽街語柳醫得名)」<sup>28)</sup>에서 유상은 의술로 유명해지지만 신묘한 경지에는 도달하지는 못하는데, 숙종의 병을 치료하고 나서 신의로 인정받게 된다. 그가 숙종의 흑함을 치료하기까지 세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첫째, 유상은 말을 타고 우연히 다다른 인가에서 그 집 주인의 의서를 훑쳐보며 둘째, 흑함을 앓고 있는 숙종의 꿈에 신인(神人)<sup>29)</sup>이 나타나 유상을 불러야 낫는다고 알려주고 셋째, 유상은 궁궐로 가는 도중에야 임금의 병명을 듣게 되는데 우연히 같은 증세를 앓았던 아이를 업고 있는 노구를 만나 치료약인 시체탕을 듣게 된다.

여기서는 노구의 신분이나 직업을 짐작할 만한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 표현대로 하면 아이를 업고 있는 여염집 할머니일 뿐이다. 그럼에도 노구는 흑함에 대한 치료법을 알려주어 유상과 왕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해결해주고 있다. 의서와 신인이 왕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면, 노구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동야회집』의 경우에는 편찬자가 직접 노구에 대한 생각을 언급하고 있다. 『동야회집』의 「청가어시체주공(聽街語柿蒂奏功)」에는 『계서야담』과 『청구야담』에 실린 유상의 일화를 모두 언급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편저자 이원명은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외사씨가 말하기를 왕의 천연두가 다음날 나온 것은 즉 천지신명이 모두 힘을 합하여 도운 것이다. 어찌 일개 의원의 기술로 나타낼 수 있는 바이겠는가? 신인이 꿈에 나타나고 노새가 달아나고 어떤 노옹과 노구의 일 등 하나하나가 모여서 합해지니 모두가 하늘이 시킨 것이다.<sup>30)</sup>

28) 『청구야담』, 364-369쪽.

29) 문맥으로 보건데 의서의 주인인 것 같다.

이원명은 왕의 병이 나은 것은 결국 일개 의원의 능력이 아닌 천지신명의 도움이 컸음을 강조하면서, 신인과 노구의 조력 또한 하늘이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노구가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대상도 유상이 아닌 바로 왕 또는 왕권임을 은근하게 암시하고 있다.

야담에서의 유상은 민간요법에 해박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의원으로 보인다. 쌀뜨물이나 감꼭지는 가난한 민중들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민간에서 관격이나 천연두의 치료제로 두루 쓰였을 것이다. 그러나 상층 신분에게 이러한 요법은 자칫 비루하게 여겨졌을 것이며, 특히 왕의 치료에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랐으리라 본다. 그렇다면 민간요법에 대한 인식을 격상시킬 수 있는 신성한 장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여기에 병귀를 보는 능력, 신묘한 의서, 그와 더불어 노구라는 장치가 활용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노구가 말한 치료법이라면 그래도 믿어볼 만하다는 신뢰, 더불어 노구라면 왕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기대, 왕의 조력자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외에도 노구는 남녀의 연분과 관련하여 조력자 즉 매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염시도’ 이야기<sup>31)</sup>에서 염시도는 우여곡절 끝에 금강산 작은 암자에서 한 처녀와 혼인을 약조한 후 헤어지는데, 후일 상주 목사의 관아에 의탁하던 중 달아난 말을 찾다가 어느 노구의 집에 들어서게 된다. 그때 노구는 금강산의 처자를 언급하며 시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한다. 노구는 처자의 어머니로 시도와는 면식이 없는데도 그가 올 것을 예측하고, 말을 찾으러 온 그를 붙잡아 딸과 연분을 맺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양사언 형제의 어머니에 대한 일화에서는 희미하나마 신화 속 조력자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승지 양모가 안변장을 지날 때, 시골집에 말머이를 부탁하는데, 그 집의 열대여섯 살 소녀가 손님 접대를 극진

30) 外史氏曰聖痘瘳即天地神明之同力而保佑也豈一醫技所能奏效而神人之感夢騾子之奔馳一翁一嫗之事節節湊合皆天使之也(『동야회집』 권지5, 446쪽)

31) 『학산한언』1, 90-101쪽; 『청구야담』, 425-436쪽; 『동야회집』 권지9, 24-34쪽.

히 하니, 공이 그 유순하고 정숙한 행동에 탄복하며, “어느 노구가 이런 아이를 낳았냐”<sup>32)</sup>고 말한다. 문맥으로 보면 어느 대단한 여성이 이렇게 영특한 아이를 낳았냐는 뜻인데, 이 말 속에서 고대사회에서 혁거세나 알영, 탈해를 양육했던 노구의 의미와 상통하는 면을 엿볼 수 있다.

### 3) 창기와 술, 비천한 업에 종사하는 여자

야담에는 노구의 신분이나 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사당, 기생어미, 약이나 술을 파는 할미, 주모, 전직 기생 등이 그것이다. 먼저, 사당을 노구라고 칭하는 경우는 앞서 「사인가노구작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노구의 모습을 ‘狀若尼嫗’ 즉 비구니와 같다고 했고, 노구의 남편인 영감에 대해서는 그 모습이 세속에서 말하는 거사와 같다<sup>33)</sup>고 했다. 생김새가 비구니와 비슷하고 남편이 거사라면 게다가 구걸하고 다닌다면, 이때의 노구는 바로 조선시대 사당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보면, 거사와 사당은 불사 건립을 명목으로 무리를 이루어 걸립을 다니며 시정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주범으로 비판받고 있다. 그들은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며, 남녀가 함께 섞여 간음을 하고, 징과 북을 울리며 생계를 유지한다.<sup>34)</sup> 그렇다면 늙은 사당인 노구는 비구니처럼 종교의 여사제이거나 그와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여성, 더불어 유랑을 하며 매음을 하는 여성 등 당시에 실재했던 천한 여성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한편 ‘치숙(癡叔)’에 관한 일화에서는 노구의 신분이 사당이면서 전직

32) 楊公尤爲嗟歎曰 遐土村家 何物老嫗 生此寧馨兒乎(『계서야담』, 87쪽)

33) 儀形如俗所謂居士者(『천예록』, 204쪽)

34) 『조선왕조실록』 예종원년 5월과 성종2년 5월의 기사에서 ‘사장(社長)’의 폐단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때 사장을 다른 말로 거사라고 했는데, 정약용은 『아언각비』에서 거사의 아내가 사당이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연호의 『꼭두각시놀음의 이해』(연극과 인간, 2001, 125-127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생이자 읍의 주모로 나온다. 『계서야담』에 전하는 「유성룡의 치숙」의 일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 중이 만단으로 간청하였으나 한결같이 굳게 거절하는지라 부득이 동자를 따라서 마을 뒤의 암자로 향하였다. 이때 치숙은 계집종을 여사당(女寺黨) 모양새로 꾸미고 자기는 거사(居士)처럼 꾸미고서, 승건과 배웃 차림으로 문을 나와 합장 맞이하였다..... 그 중이 달게 마시며 말하였다. “이 술이 매우 청렬(淸冽)한데 어디에서 난 것이요?” “이 노구는 바로 이 읍의 주모랍니다. 기생을 하다가 늙어서 물러난 사람인데, 아직 예전 습씨가 있어서 그렇답니다.....”<sup>35)</sup>

위의 인용문은 평소 어리석은 미치광이로 통했던 서애의 숙부가 조카를 해하려고 잠입한 일본 첩자를 암자로 유인하여 술을 대접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노구는 거사와 함께 절에 사는 사당처럼 분장하는데 일본 첩자에게는 전직 기생이면서 읍의 주모로서 술을 잘 빚는 여성으로 소개된다. 이는 당시 노구가 거사와 사당, 기생, 주모 등의 천민 신분 및 절이라는 공간과 유동적인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노구의 신분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기생어미이다. 노구는 어사 ‘박문수와 진주 기생’, ‘옥계 노진과 선천 기생’ 등의 이야기에서 기생어미로 나오며, 홍순언의 의기를 다룬 일화에서는 청루의 포주로 나오기도 한다. 한편 『동야회집』 권지7의 「수의태방다모가(繡衣給訪茶母家)」에는 다모를 노구로 표기하고 있는데, 다모가 기생의 업을 겸한 것을 보면 이때의 노구 또한 기생어미로 볼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의녀가 약방기생으로 불리며 유흥의 공간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녀 역시 노구로 불렸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산한언』의 「권익홍의 혼령과 사랑을 나눈 분영」<sup>36)</sup>에서 분영이라는

35) 『계서야담』, 330쪽.

36) 『학산한언』2, 93-99쪽.

고을 기생은 나이가 71세로 의녀로 있다가 늙어 퇴직해서 고향에 돌아와 있는데, 자태가 거만하고 피부에 윤택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 『동야휘집』의 「감구은묵수등평(感舊恩墨倅登褒)」<sup>37)</sup>에서 통제사 유진항은 왕의 명령으로 밀주를 단속하기 위해 일부러 병을 앓는 척하며 술을 찾는데, 이를 본 그의 첩은 “當從針女商姬輩之親熟者鉤得有酒處第” 즉 침녀와 장사꾼 할미의 무리와 친한 자를 낚으면 술이 있는 집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침녀는 침의녀, 상구는 늙은 상인을 말하는데 이들과 친한 자들에게서 술을 얻는다는 점에서 둘은 기생과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영천 박씨녀 사건」<sup>38)</sup>에서 돈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하는 약 파는 할미 또한 은퇴한 의녀<sup>39)</sup>쯤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 기생과의 관련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노구는 기생어미, 다모, 의녀, 장사꾼 할미, 사당 등 다양한 직업의 여성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들 직업은 공통적으로 연희(演戲) 및 술과 유흥, 그리고 그것이 성행하는 시정(市井)이라는 범주로 묶여진다. 여기에 불교나 무속과의 연관성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노구의 계층을 따진다면 천민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천민이 되 그 위상은 여타의 천민과는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계서야담』의 「기강을 바로 잡은 관리 둘」에서 노구는 금주령에도 술을 먹을 수 있는 여성으로 나온다.

37) 『동야휘집』권지9, 59-67쪽.

38) 『계서야담』, 44-49쪽; 『동야휘집』권지3, 289-293쪽.

39) 의녀는 특정 분야의 의술을 빨리 익혀 뛰어난 실력을 보이면 내의녀로 발탁되고, 그러지 못하면 마흔 살이 될 때까지 간병의로 남아야 했다. 그리고 마흔 살이 지났는데도 전문 분야가 없으면 원래의 역인 관비 신세로 돌아가야 했다.(한희숙, 『팔방미인 조선 여의사 의녀』, 문학동네, 2012, 46쪽); 의녀는 성종 말기부터 기생처럼 남성과 어울렸다. 이러한 분위기는 연산군 이후 더욱 심해져 관행처럼 굳어졌다..... 의녀를 잔치에 동원한 것은 의녀가 천인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연산군 이후 의녀들은 약방 기생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약방 기생이란 병을 진찰하는 의녀 기생을 지칭하였다..... 양반가에서도 친한 벗을 접대할 때 창기와 의녀를 불러 술잔치를 베풀었다.(한희숙, 앞의 책, 115쪽)

대사헌 홍오는..... 그 풍채가 의연한지라 조정이 두려워 떨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감히 사사로운 정으로 간섭하지 못하였다..... 또 능히 안으로는 강하면서 밖으로는 온화하였으니, 비록 지극히 천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극진하게 대우하였다. 일찍이 큰 가뭄이 들어 민간에 술을 엄하게 금하였다. 그런데 어떤 술 취한 노구 일곱 여덟 사람이 손뼉을 치고 단가를 부르며 어지럽게 춤을 추더니 앞을 가로막았다. 공이 수레에서 내려오자 노구들이 말하는 것이었다. “나으리. 나으리. 이 참 좋지 않습니까? 왜 술을 금하시는 겁니까?” “좋소. 좋아. 노구들은 너무 술을 마시느라 재물을 없애지는 말게나.” 온 시중이 모두 감탄해 마지않았다.<sup>40)</sup>

홍오는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앞장섰던 관리로 원칙을 준수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금주령 하에서 술을 먹고 춤추고 노래하는 노구들에게 벌은커녕, 술 먹느라 재물을 낭비하지 말라는 후덕한 인심을 베풀고 있다. 그가 아무리 천한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의인이라 해도, 금주령 하의 밀주나 음주는 목숨이 오가는 죄인 만큼 이를 허용할 수는 없다. 노구에게 베풀 선처는 일반 백성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그렇다면 노구는 금주령에도 술을 먹을 수 있는 여성, 재물이 있어 술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여성, 그런데 신분이 낮은 여성일 것이다.

노구는 특정한 한 계층의 여성 또는 한 직업의 여성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야담에서 그는 민간요법을 잘 알거나 약을 파는 자, 기생 어미, 여사당과 같은 예능인, 술이나 두부를 파는 장사꾼이다. 여기에 『조선왕조실록』이나 조선후기 소설을 참고하면 왕을 알현할 기회가 있는 자, 상층 집안에 출입이 가능한 자, 양가의 자제와 여염의 여자를 맺어주는 매파이기도 하다. 덧붙여 19세기 『승정원일기』<sup>41)</sup>와 『올레요람』에서는 남녀

40) 『계서야담』, 716-717쪽.

41) “지난 7월 5일에 올린 남부(南部)에 사는 포수 최두흥(崔豆興)의 고장(告狀)에, 이웃에 사는 노구 귀향(貴香)이 최두흥의 처를 피어 단천(端川) 사람인 출신 이익번(李益蕃)을 서방으로 삼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귀향과 이익번을 최두흥의 처와 함께 잡아와서 주문하였더니, 이익번이 귀향의 주선으로 최두흥의 처와 간통한 사실이 의심할 것 없이 명백하였고 이익번은 이미 지만(遲晩)하다

의 간통을 조장하거나 알선한 여성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노구의 군상은 일정한 범주 안에 머물러 있다. 비속한 여성이지만 민간의 종교와 관련한 성스러운 면모, 연희와 관련된 예능인의 면모, 남녀의 교합과 관련된 생산적인 면모, 즉 성숙의 양면을 가지고 있어 비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외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 것이다.

### 3. 노구를 통해 본 조선후기 일탈형 여성상의 의미

노구는 관념적이면서, 동시에 실재하는 여성을 가리킨다. 조선후기 노구의 관념적인 특징은 고대사회의 위상이 쇠퇴하거나 부정적으로 변모된 여신으로 나타난다. 활달하게 벌였을 창조의 역할은 거구와 완력을 지닌 채 패악을 끼치는 요괴로 변했고, 풍성한 생산과 양육의 모습은 음험한 색욕으로 남았다. 그러면서도 왕이나 위대한 영웅을 위기에서 구하거나 남녀의 연분을 이어주던 조력자의 이미지는 변하지 않아 문제 해결의 정점에서 주인공을 보좌해주었다. 한편 노구는 실재하는 존재였다. 시정에서 볼 수 있는 사당, 기생어미, 포주, 장사치 등의 천한 신분의 늙은 여성이 바로 노구였다. 그들의 직업은 다양해보이지만 종교와 성과 연희와 유흥이라는 경계 내에 존재한다. 그렇다고 그런 여성 아무나 노구가 되는 것은 아니었고, 적어도 앞서의 관념적 의미에 부합하는 면이 있을 때 노구로 일컬은 듯하다.

야담은 이처럼 생생한 노구의 모습을 통해 그가 어떤 식으로 존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야담이 나름 당대 노구의 상을 반영하고 있듯이, 조선후기 여타의 문학에서도 노구는 독특한 여성상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먼저 놀이문학에서 가면극의 할미와 인형극의 꼭두각시를 들 수 있다. 할미과장의 주인공인 할미와 인형극의 꼭두각시는 영감

---

고 공초(供招)하였습니다.(영조2년, 1726년 7월 8일)

과의 불화로 죽임을 당하거나 기출하는 불쌍한 본처로 여겨졌고, 더불어 이 과장의 주제 또한 처첩간의 갈등으로 인한 가정사의 비극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이 극의 중심에서 희화화되고 풍자되는 대상은 할미와 꼭두각시이다.<sup>42)</sup> 극 속에서 할미는 마을을 지키는 당산 신을 가리키는가 하면<sup>43)</sup> 신을 섬기는 사제자<sup>44)</sup>, 성욕과 식욕을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비속한 여성으로 나오며, 신분은 사당, 무당, 포주, 한량이나 유기장수의 아내, 일반 서민, 양반의 부인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sup>45)</sup> 또 할미의 죽음은 극 전체에서 할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부분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 시작하는 계기이거나, 갈등의 모든 양상이 응집되는 결과물이며, 동시에 원만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기점이다.

실상 할미의 이러한 성격에 주목하여 선학들은 할미의 원형을 계절의 신, 대모신(大母神, Mother goddess)으로 보고 할미과장이 여성 창조신에 대한 신앙과 제의에서 출발하여 중세를 거치면서 오락화된 것으로 보았다. 필자 또한 할미과장이 제의에 바탕을 두었다는 견해에 충분히 동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대모신에 대한 제의와 신앙이 쇠퇴하고 오락화되면서 할미라는 인물이 갑자기 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의에서 놀이로 놀이에서 극으로 발전하려면 추상적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본보기가 있어야 생동감 있는 캐릭터를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반과장의

42) 김국희의 앞의 글(7-9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43) <봉산탈춤> 영감의 대사 중 “너하고 나하고 이 동네를 떠나면 이 동네에 인물 동티난다. 너는 저 웃목에 서고, 내가 아랫목에 서면 이 동네에 잡귀가 범치 못하는 줄 모르디냐?”(이두현, 『한국가면극선』, 교문사, 1997, 204쪽)에서 할미와 영감은 웃당산과 아랫당산을 지키는 마을신으로 해석된다.

44) <양주별산대>에서 할미가 죽자 영감과 자식들은 할미를 위한 천도굿을 하는데, 그렇다면 할미 또한 무계 집안의 여성으로 봐야 한다. <통영오광대>에서 할미는 용왕신과 산신을 섬기며, <고성오광대>에서는 첩이 출산하려 하자 부정굿을 행한다.

45) 할미는 서울·경기 및 황해도의 탈놀이에서는 무속이나 포주 등의 천민 신분인 반면, 경남지역 가면극에서는 일반 서민이나 양반부인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의 특성과 관계있다고 본다.

경우 양반은 무능하고 위선적이라는 추상적인 개념과 함께 그 어미가 사통하여 낳은 자식, 언청이, 노름꾼, 무지와 허세 등 실제 양반이 가진 구체적인 속성을 찾아내야 인물을 제대로 형상화할 수 있듯이 말이다.

다음의 <밤마리오광대>의 배경설화는 이러한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約) 백년(百年) 전(前) 초계(草溪)에 [말뚝이]라는 마부(馬夫)가 살고 있었다. 그는 성(性)이 박가(朴哥)요, 원(元)은 양반(兩班)이었으나 하인(下人) 노릇을 하며 지냈다. 초계(草溪)는 양반(兩班)이 억세어 상민(常民)이나 하인(下人)을 천대(賤待) 또는 무시(無視)했다. 이에 화가 난 말뚝이가 양반(兩班)의 내정(內情)을 알아서 그 추행(醜行)을 촌민(村民) 십여 명(十餘名)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폭로(暴露)를 했다. 그때 제 얼굴로 하는 날이면 양반(兩班)들로부터 경을 치니, 탈을 쓰게 되었다.<sup>46)</sup>

이 설화에서 말뚝이는 실존 인물로 나오고 있는데 이야기의 진실성은 논외로 하고, 말뚝이가 양반을 풍자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양반의 내정을 조사해서 구체적인 추행을 찾아낸 후 그것을 극화하고 있다. 즉 특정한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의 표면적인 형상과 행동은 물론 이면에 감추어진 속성마저 들추어내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할미의 본보기는 누구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그녀가 가진 복합적인 성격을 볼 때, 단순히 일반적인 늙은이를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다. 할미과장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건 이 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할미라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본보기로 삼을 실물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할미가 지닌 대모신의 이미지와 잘 부합하는 인물, 즉 노구였을 것이다.

대모신 할미와 노구는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이라는 동일한 역사 과정을 밟아오면서 둘 다 위상이 쇠퇴했다. 창조의 여신은 유교 가부장제

46) 예용해, 『인간문화제』, 어문각, 1963, 121-122쪽.

사회를 거치며 거구의 할미로 변했고, 때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요괴로 인식되었다. 고대사회 왕가의 양육과 관련하여 음지의 권력자였던 노구는 오랜 중세의 시기를 거치는 동안 하층 신분의 비속한 늙은이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그가 지녔던 고귀한 위상은 급격히 추락했다. 따라서 창조신과 노구, 양자가 만나는 지점에서 할미 또는 꼭두각시라는 구체적인 인물상이 구현된 것이다.

이야기 문학의 경우 본고에서 논의한 야담과 함께 서론에서 언급했던 애정소설에서 노구의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상사동기』에서는 왕족인 회산군의 저택을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늙은 여성으로 등장하여 진사와 궁녀의 연분을 맺어주며,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에서는 한미한 서생과 이미 혼인한 여종의 간통을 조장하는 행랑할멈으로 나온다. 다만 노구의 업은 단순한 기능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주인공들의 사랑이 불륜과 인연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sup>47)</sup>

한편 「심청가」의 ‘뽕덕어미’, 「북선화음가」의 ‘괴똥어미’, 『꼭두각시전』의 ‘이부인’, 「변강쇠가」의 ‘옹녀’ 등을 통해 유교적 규범에서 일탈한 여성상을 보게 된다. 그녀들은 나태, 물욕, 식욕, 색욕, 수면욕으로 자신은 물론 집안의 몰락을 초래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 면모가 한 인물에게 모두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들 여성은 당대 실재했던 여성이라기보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인식된 모든 성격들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총체적 성격은 신화 속 여신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작품 속 화자와 독자의 시선은 모든 폐단을 골고루 가진 이 여성들을 유교의 잣대를 들어 죄인으로만 취급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자유분방함, 체체에 구속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통해 원초적 카오스에 대한 향수, 즉 일말의 공감이나 동정을 느끼는

47) 김국희, 「조선후기 애정 소설 속 노구의 의미」, 『어문학』121, 어문학회, 2013, 154-158쪽.

듯하다. 이처럼 신화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여성상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포괄적 인식, 그 이면에는 당대 사회의 노구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규범의 제약을 받지 않는 본성의 발현, 그러한 본성이 집약되고 전형화 된 여성상이 문학 전반에 형상화된 데에는 이들 여성상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여성, 즉 노구의 모습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 4. 결론

이상으로 조선후기 야담에 나타나는 노구의 특징과 의미를 고찰해보았다. 정리하면 야담에 나타나는 노구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살필 수 있다. 첫째, 경이롭고 두려운 요괴로 인간에게 해악을 끼친다. 그러나 거구, 완력, 배 짜기, 집을 관장하는 신격 등의 모습에서 일반적인 요괴가 아닌 고대의 창조 여신이 부정적으로 변한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주인공의 일을 돕는 숨은 능력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노구는 표면적으로는 위기나 곤란에 빠진 주인공을 돕고 있지만 그것이 국가나 왕에 대한 조력으로 귀결되는 특징이 있다. 또 남녀의 경우 그 연분을 이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셋째, 기생이나 술과 관련한 미천한 일에 종사하는 늙은 여자이다. 노구의 직업은 기생어미, 사당, 주모, 약을 파는 상인, 청루의 포주 등으로 나온다. 그런데 다모나의 녀가 기생을 겸한 것을 볼 때, 노구는 기생, 의녀, 다모, 사당을 중심으로 술·유혹·연희의 범주에서 활동한 여성으로 볼 수 있다.

야담은 당시 노구의 면모를 비교적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를 통해 노구가 조선후기 문학에 나타나는 일탈형 여성상의 형상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먼저 놀이문학에서는 가면극의 할미와 꼭두각시라는 구체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데 본보기가 되었다. 그 근거로

할미의 원형은 창조의 신, 대모신의 신성한 신격이며 동시에 극 중 할미의 직업이 노구와 유사한 사당, 포주, 무속인인 점을 들 수 있다. 즉 신을 인격화하는데 있어 노구는 구체적인 모델이 되었던 것이다. 이야기문학에서는 「심청가」의 뽕덕어미, 「복선화음가」의 괴똥어미, 『꼭두각시전』의 이부인, 「변강쇠가」의 옹녀 등 유교적 규범을 어긴 여성을 표현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들 일탈적 여성들이 가진 물욕, 식욕, 색욕, 수면욕은 당시 사회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지만, 한편으로 체제에 구속되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원초적 카오스에 대한 향수를 일으킨다.

이처럼 인간적 본성이 집약된 여성상이 조선후기 문학 전반에서 형상화된 데에는 이들 여성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여성, 즉 노구의 모습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자료 -

- 노명흠, 김동욱 역, 『국역 동패락송』, 보고사, 2012.  
삼척군, 『삼척군지』, 1984.  
신돈복, 김동욱 역, 『국역 학산한언』, 보고사, 2006.  
이월영·시귀선 역, 『청구야담』, 한국문화사, 1995.  
이희준, 유화수·이은숙 역,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2003.  
임방, 김동욱·최상은 역, 『천예록』, 명문당, 2003.  
정명기 편, 『원본 동야휘집』, 보고사, 1992.  
한국학중앙연구소, 『구비문학대계』2-3, 1981.  
홍만중, 전규태 역, 『순오지』, 범우사, 1979.

- 논문 및 단행본 -

- 고혜경, 『태초에 할망이 있었다』, 한겨레출판, 2010.  
길진숙, 「뽕억어미와 괴똥어미의 일탈과 그 성격」, 『한국고전연구』1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85-118쪽.  
김국희, 「사서를 통해 본 노구의 특성과 변이양상」, 『어문연구』75, 어문연구학회, 2013, 164-187쪽.  
김국희, 「조선후기 애정 소설 속 노구의 의미」, 『어문학』121, 어문학회, 2013, 137-159쪽.  
김국희, 「할미의 놀이와 이야기, 그 문학적 계승과 변이양상 연구」, 부산대 박사, 2013.  
박은애, 「한국 고대 토착신앙의 담당자」, 『신라문화』38, 동국대신라문화연구소, 2011, 115-134쪽.  
서연호, 『꼭두각시놀음의 이해』, 연극과 인간, 2001.  
송화섭, 「한국고대사회에서 성모와 노구」, 『백산학보』64, 백산학회, 2002,

157-183쪽.

예용해, 『인간문화재』, 어문각, 1963.

유형동, 「임방의 기이 수용과 천예록」, 『동아시아고대학』34집, 동아시아  
고대학회, 2014, 171-199쪽.

이두현, 『한국가면극선』, 교문사, 1997.

이승은, 「천예록 소재 기이담의 양상과 의미」, 『어문학교육』43집, 한국어  
문교육학회, 2011, 199-229쪽.

임완혁, 「조선후기 3대 야담집의 편찬의식」, 『퇴계학과 한국문화』35-1,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4, 109-138쪽.

최광식, 「삼국사기 소재 노구의 성격」, 『고대사학회』, 1981, 1-23쪽.

한희숙, 『팔방미인 조선 여의사 의녀』, 문학동네, 2012.

<Abstract>

## The Significance and Meaning of Nogu Represented in Yadam in the Late Joseon Dynasty

Kim, Kook-hee

Nogu(老嫗, an old lady) was in charge of the love affairs related to priests, royal assistants and royal families in the ancient times, changing into a vulgar woman aggravating illicit love between sons from a good family and middle-class married women in the medieval society. She, on the other hand, was considered a sacred woman with an image of goddess or Weolhanoin(月下老人). In other words, Nogu had a combined character with the divine and the worldly. This research shows Nogu's social status, occupations, specific activities and her significance associated with immoral women described in the entertainments and narratives based on the Yadam in the late Joseon Dynasty.

Nogu is largely classified into three characters in the romantic folktales. First, she was a mysterious and dreadful ghost doing people harms. However, it is noticed that she was not a common ghost but a negatively transformed figure from the ancient creating goddess who had taken control over a giant, forcing power, a loom and housing. Secondly, she has an image of a hidden able person to help main characters. Considering this image viewed in folktales including Yeoyongsa and a celebrated doctor, Yusang, Nogu was seemingly

helping main characters in danger and trouble, finally turning into a role of helping a nation or a king. Lastly, she was an old woman who engaged in humble jobs containing Kisaeng and drinks. Nogu's jobs are referred to as Kisaeng's mother, Sadang, a barkeeper, a vendor selling remedies, a keeper of a brothel, and so on. But, given that Damo or a doctor assistant played combined roles of Kisaeng, those jobs account for one category of putting all of Kisaeng, a doctor assistant, Damo and Sadang together.

These aspects of Nogu have had great influence on a view of women in the late Joseon literature. First of all, Nogu became a role model shaping the images of Halmi and Kkokdugaksi in mask play in the entertainments. There are some grounds in that a goddess of season and Mother goddess are the prototypes of Halmi and Halmi's jobs are similar to those of Nogu. Nogu, namely, grew a detailed model to express a divine being as a human being. Nogu has had an impact on displaying the women who would escape from Confucian tradition, such as Ppaengdeukeumi of Simcheongga, Koiddongeumi of Bokseonhwaemga, Mrs. Lee of Kkokdugaksijeon and Ongnyeo of Byeonkangsoiga in the narratives. The desires of materials, appetite, sex and sleep which immoral women indulged in were regarded as rejected in those days, which has provoked nostalgia for unrestrained human nature and instinctive chaos. Likewise, the looks of Nogu, who had the closest relations with these women, seem to have had an effect on the image of woman with intensified human nature widely represented in the late Joseon literature.

Key Words : Nogu, Yadam, negative goddess, Kisaeng, Halmi,

70 한국문학논총 제70집

Deviant women, Kkodugaksi

■ 논문접수 : 2015년 7월 20일  
■ 심사완료 : 2015년 8월 10일  
■ 게재확정 : 2015년 8월 20일